

# 순정이

연중 제13주일

제 1 독서 : 2열왕 4, 8-11, 14-16 a  
제 2 독서 : 로마 6, 3-4, 8-11  
복 음 : 마태 10, 37-4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마태 11, 39)



## 나그네 대접

최용준 신부 / 원평천주교회

주님의 은총인지 운이 좋은 건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땀. 필기시험 점수와 학원등록을 마친 후 인사 발령의 통고를 받고, 인사이동의 와중에서 운전 연습을 하자니 통근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한달이 채 못되어 면허증을 땀.

본당 신자 아저씨의 간단한 지도와 연수를 받고 매일 아침 혼자서 연습을 하는데 한적한 산골길을 달리는 기분은 아주 상쾌해서 자신의 운전 실력을 잊어버릴 정도이다. 전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다가 마을 옆을 지나가는데 웬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접근해왔다. 일단 주의, 경계를 하고 속도를 줄이는데 바짝 옆으로 온다. 슬쩍 바라보니 완전히 시골농부인데 얼굴이나 몸놀림이 고된 농사일과 흠뻑새로 찌든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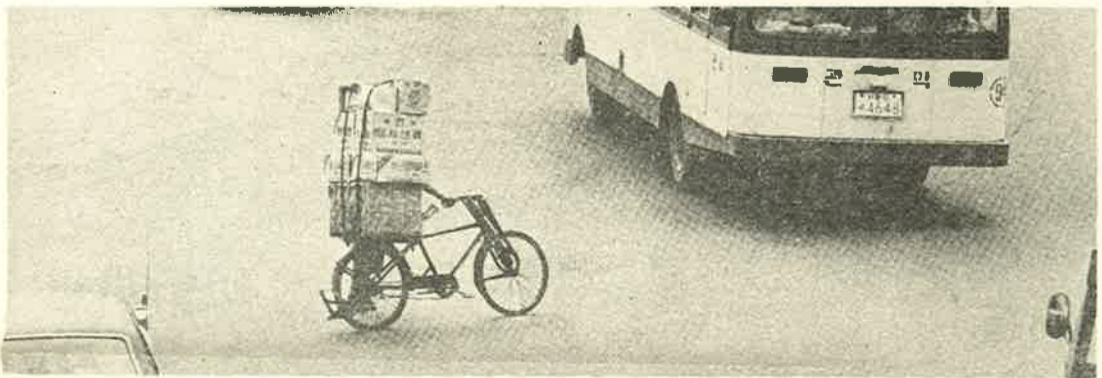
덜컥거리며 차를 멈추었다. “아저씨, 어찌 그러시오?” “전주 좀 가야 되겠는데 차가 없어서 그러니 좀 태워주소.” 이른 새벽에 차가 있을리 없다. 얼굴을 창문에 들이 밀며 말하는 것을 보니 꽤 바쁜 모양이다. 태워도 될까? 태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운전 실력이 문제다. 난 아직 시내에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만일 이 사람이 시내 깊은 데까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배우는 중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들이 순간 스쳤으나 모처럼 사정하는 나그네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태워 주기로 결정을 했다. “타슈”

옆에 승객이 올라타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보자’ 하고서 2단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니 ‘덜컹’하고 엔진이 꺼져 버린다. ‘하필이면 이런 때 실수를 하다니...’ 하면서 재빨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다. “어디까지 가쇼?” “효자동 소장에 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효자동 입구에서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저씨, 이 동네에 사세요? 혹시 어디 교회 나가신데 없어요? 저는 원평성당 신부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저는 아무데도 안나가는데 원평 성당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차는 계속 굴러갔다. 어느덧 효자동 입구까지 왔다. 부산한 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서서히 길가로 차를 세우려 했다. 아저씨가 손을 주머니에 넣더니만 돈을 꺼낼 눈치이다. “아저씨, 관두쇼.” “아이고, 그러면 쓰간디요? 도리가 아니지요” 하면서 끝내 지폐를 내놓고 내린다. “아저씨, 한번 성당에 놀러 오쇼 - 오. 잘 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렇려고 태운 것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서 서서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폐를 만져 보았다. 천원짜리 석장이었다. 어찌 오늘은 이상하다?

어설픈 손놀림으로 차를 되돌리면서 속으로 그 아저씨를 향해 소리를 쳤다. “꼭 한번, 성당에 찾아오쇼. 제가 선물로 드릴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인연을 맺는 것은 좋다. 이것도 나그네 대접이라면 이를 기화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창가에 놓아진 지폐를 바라보았다.



## 고3 청춘

靑春아, 내 너를 굳이靑春이라 이름지은 것은 환갑이 지나고 진갑을 넘어도 푸르고 또 푸르게 살으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너는 지금 苦行의 수도승처럼, 새벽이면 도시락 세 개를 싸들고 학교라는 곳을 찾아가 한밤중이 다 돼야야 텅빈 도시락과 함께 돌아오는靑春.

축 처진 네 뒷모습이 눈물겹도록 안쓰럽구나.靑春아! 네 나이 방년 십팔세.

窓밖의 녹음처럼 싱싱한 나이, 더구나 이름마저 푸른靑春 아니더냐.

그렇지만 내가 어디 청춘이나. 푸르른 나뭇잎조차 몸을 사리는 한밤중에 정통영어니 수학정석이니 하는 책들을 굴비두름 읽어 매드 깊어지고 대문을 들어서 너의 모습은 어디 크리스마스 캐롤이던가, 쇠사슬을 얹어매고 이곳저곳 다니는 스쿠루지 영감과 다름아니다.

사랑스런 내靑春아. 세상에 태어난 첫 울음소리의 여운이 짙어 가지기도 전에 너는 벌써 길가의 은행나무와도 잘 어울리는 멋진 키의靑春이 돼버렸구나.

그렇지만 내가 어디 저 푸르른 잎과리의 나무들처럼 신명나게 살아본 적이 있더냐?

옛날이면 장가를 두 번 가고도 남았을 나이에 어디 밝은 대낮에 여자친구 손이라도 잡고 깔깔거리며 웃어본 적이 있더냐.

교과서에 나오는 것 말고 그럴 듯한 詩 한줄 느긋하게 읊어본 일이 있더냐.

로큰·롤이나 디스코나 하는 것들에 맞추어 마음놓고 춤 한번 제대로 추어본 적이 있더냐.

독한 소주라도 훔쳐 마시면서 아직은 풋내나는 인생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로 친구들과 밤늦도록 뜨겁게 이야기해본 적이 있더냐.

비오는 날 무작정 열차에 몸을 싣고 가는 곳 없이 달려본 적이 있더냐.

아니면 목이 터져라 가슴이 후련하도록 노래라도 불러보았나?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가방이 세 개, 주산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학교 끝나고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오후6시. 대한민국 공무원보다도, 어린 내가 더 늦는 날이 많았지.

볼따구니에 여드름을 꽃피우기 위해서靑春인 너는 수천 번의 시험을 치루어야 했다. 일제고사, 실력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가 된 너靑春에게 이젠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오로지 학력고사 점수와 대학입시라는 무거운 쇠사슬이 씌워지고 웃는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구나靑春아. 내 사랑스런靑春아.

하얗게 바랜 네 얼굴이 푸르름으로 밝게 빛날 때는 언제쯤인가?

네가 걸머낸 도시락 세 개가 환한 꽃으로 피어날 때는 언제인가?

막힌 네 뺨에 맥박이 뜨겁게 다시 뿜 날은 언제일까?

너의 붉은 입술에서 청춘예찬이 흘러나올 날은 언제인가?靑春아.

내 안스러운靑春아! 내 너를 굳이靑春이라 이름지은 것은 바로 지금을 푸르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 대자연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가정공동체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사회, 신앙생활의 기본단위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바쁘고 혼탁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공동체의 중요성은 자칫 잊혀지기 쉽다. 자연 속에서 가족과 만나고 이웃과 만나고 하느님과 만나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케 한다. 신앙과 생활에 생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행사라면 훌륭한 여름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활성서 본문에서」





#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는데...

## - 멈추어선 치명자산 공사 -

**+ 천주께 영광**  
 사랑하옵 우리 주교님, 사제님  
 께 삼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  
 올리나이다.  
 저는 한낱 작은 신자로서 제가  
 기에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심  
 이 있어 붓을 들었나이다.  
 치명자산을 찾을 때마다 공사가  
 단되어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주교구 신자들의 힘이  
 령게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성이 부족한 것인지...  
 라 본당 신축공사는 시작하면  
 은 시련중에도 끝마무리짓는  
 도 돌아오는데, 치명자산 지하  
 양은 소속이 분명치 못한(?)  
 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극 안사서도, 언제가는 완공이  
 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들  
 루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베푸시어  
 덕으로 준공되기를 바라는 심  
 들이신지...  
 치명자산은 우리 교구에 있는  
 명자 성지순례 장소이니, 가장  
 쉽게 자주 그곳을 찾는 발길들  
 전주교구 신자님들이시겠지  
 사랑하옵 주교님! 그리고 존  
 하는 사제님! 보잘것없는 제가  
 허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오니  
 여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  
 전주교구 각본당들이 주일미사

후에 "치명자산 지하성당 신축을  
 위한 2차 봉헌금을 받으면 어떻  
 지요?" 많은 돈을 뚝돈으로 바  
 치기는 어려워도 자기 형편에 따  
 라 조금씩이라도(천원 또는 오백  
 원, 백원) 정성스레 봉헌하고,  
 '나도 지하성당 신축에 참여했다'  
 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별로  
 부담도 안되고 주님 대전에 착한  
 일을 한 것 같은 떳떳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만이 꼭 좋은 방법이  
 라고 고집부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교장에 있는 성지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천주대전에 봉헌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할지요. 같은 일  
 도 몇몇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루  
 는 것보다는 많은 신자들이 참여  
 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 '주인 의  
 식도 생기고, 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와 내  
 것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겠지요.'  
 물론 각 본당마다 그 나름대로  
 의 어려운 숙원사업이 있지요.  
 성당을 신축한다든가, 대대적  
 인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사제관,  
 수녀원, 유치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농촌 영세민들이거나 산간  
 벽촌이어서 본당 유지비가 나오  
 기도 힘이든다든가 등등.  
 사랑하옵 주교님, 절대로 강요는  
 아니고, 즐겨 봉헌하는 정성만을  
 모두 모은다고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을 이룬다는 속  
 담이 있듯이, 내가 아무리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신앙을 지키다  
 순교하신 조상님들을 기리는 성  
 지에 지하성당을 짓는데, 한달에  
 네 번을 모두 봉헌하지는 못해도,  
 두 번이나 단 한번쯤은 참여하여  
 백원이라도 바쳐 보겠다는 것이  
 진실한 교우들의 심정일 것입니  
 다.  
 숙원사업을 이루고저 여념이  
 없으신 본당에서는 기간을 좀 미  
 루어서 하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 전주교구 신자들의 힘을  
 모두모두 한데 모아 우리 공동체  
 가 무럭하지 않음을, 그리고 하  
 님님의 자녀들이 모두 정성 지극  
 한 자녀됨임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팔손을 바라보는 노구를 이끌고  
 성물을 팔아서 한푼이라도 더 봉  
 헌하려고 춘추추동 사계절을 하  
 루도 거의 빠짐없이 치명자산에  
 오르내리시는 할머니의 정성을 볼  
 때 그 몇 분의 일이라도 본받아  
 야겠다는 것이 우리 신자된 사람  
 의 양심적인 심정입니다.  
 두서없는 사연 잘못 표현된 점  
 이 있으면 널리 용서하시어.  
 1990년 6월 6일 전주교구 안의  
 신자 한 사람이 올림

# 알고 봅시다

**엄마들을 위한 영화 「에마논」**  
**앵콜 상영**  
 일시: 1990년 7월 9일 오후3시  
 장소: 가톨릭 센타 3층  
 회비: 1,000원  
 많은 관람바랍니다.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랑의 행위 속에 비춰진 인간이 본 메시아의 모습, 그 속에 핀 소아마비 어린이와의 사랑은 에마논을 향해 기적의 땀방울을 지켜본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 M. B. W. 수련자 모임을 위하여 ●**

한국 인구 7천만, 남쪽만 4천만 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통계가 있다. 네 사람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회 이 민족은 어쩌면 이리도 오래고 깊은 분열과 미움의 상처에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려고 조급쩍한 애를 썼다면 상황은 훨씬 나아져가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보인다.

가톨릭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65년에 교회의 쇄신(현대세계에의 적응)을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폐막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공의회가 가톨릭의 진보와 개방과 참다운 인간화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음은 오늘의 한국천주교회의 놀라운 성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M. B. W.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은 공의회 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펼쳐지는 현대적 영성의 운동이다.

전주교구에 도입 된지 15년 남짓되는 이 운동의 중간 점검과 결산,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위한 모임이 7월 17일에 있게 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하나되어 형제애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터전이 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갈무리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 기초 과정, 대화 과정, 복음화(현대복음선교) 과정, 새로운 본당상 과정 등 M. B. W. 수련회에 참석했던 모든 형제자매들의 다시 모이는 그날이야말로 교회쇄신과 헌신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소리가 울릴 것을 기대해본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살자!'

전주교구 M. B. W. 추진회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 회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축! 영명: 본당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니 건강하세요. <신사 일동>  
 견진 대상자 접수: 중학생 이상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7월15일 까지.  
 중·고·대학생 첫영성체 누락 대상자 접수: 24일 저녁7시30분부터 교리 시작. 3. 병자 봉성체 5일(병자가 있으신 가정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 4. 모임: 울뜨레아-오늘 저녁8시 성심회, 성가대 월례회-6일 10시30분 미사 후 성지순례-5일 저녁7시30분, 반희상모임-6일 10시30분 사목회 분과 모임-6일 저녁8시.  
 천사회 단합야유회: 8일 저녁11시 이리역 집결. 6. 금주 청소년: 중노2가5,6반, 차주 청소년: 중노2가 7,8반. 7. 축하합니다. 치명자산의 모후 400차 작은 자매의 집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80,560원 □ 교무금: 495,000원

**목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근

교황주일: 2차 헌금-7월1일 2. 사목회: 오늘 저녁미사 후. 대건회: 15일 남성3단체 단합대회. 4. 울뜨레아: 3일 저녁미사 후. 5. 밀알회: 4일 오후7시. 6. 제대회: 5일 오전10시. 성체강복: 5일 저녁미사 후. 8.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6일 오전11:30. 9. 첫영성체 첫교백: 7일 오후4시 어린이미사 후. 0. 첫영성체 어린이 영세식: 7일 오후7시. 11. 꾸리아: 8일 오후2시. 12. 청년회: 8일 저녁미사 후. 13. 첫영성체: 8일 공식미사. 14. 유수녀님 영명축일: 8일(축하드립니다). 15. 복자 신홍철동조합: 남여 직원 모집할.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지참본인이 접수.  
 금주 전례: 해설-박중호 독서①박병희 ②김보현 봉헌-박병희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최옥남 ①황선주 ②송경숙 봉헌-황선주 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10,760원 □ 교무금: 965,2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꾸리아: 공식미사 후.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첫주(오늘).  
 3. 성경읽기: 연왕기 상13장~24장.  
 4. 금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양주태 ②장영미 봉헌-황옥섭, 정영만 씨 부부  
 5. 차주 전례: 해설-유만순 독서①강덕용 ②김순이 봉헌-한동욱, 이완봉씨 부부  
 6. 교황주일: 교황님 뜻대로 쓰여질 2차 헌금 실시  
 □ 지난주 봉헌금: 210,08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연중 제13주일(교황주일)-2차 헌금  
 1. 회의: ①사목회-7월4일(수) 저녁미사 후. ②자모회-7월3일(화) 오전10시30분.

2. 모임: ①울뜨레아-다음주 수요일 오후8시 ②전례부-다음주 일 저녁미사 후.  
 3. 알림: ①성가대 정기총회-7월3일(화) 오전10시30분. ②방성제-7월4일(수)  
 4. 감사: 깨끗한 봉헌해주신 분들과 견진성사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17,170원 □ 교무금: 44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 직 환

1. 공병 수집: 모든 신자여러분 협조바랍니다.  
 2. 반당, 구역장 모임: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7월7일 토요일 오후2시.  
 4. 부활 영세자 모임: 7월7일 토요일 5시.  
 5. 청소년사: 주광 3단지 동편.  
 신축헌금·신입총액: 21,674,000원 입금: 11,540,000원  
 □ 지난주 봉헌금: 372,170원 □ 교무금: 751,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중 총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독 수

※ 오늘은 교황주일입니다. (2차 헌금) 주일금 배가운동에 협조바랍니다.  
 1. 재속 글라라 형제회: 오늘 오후1시30분. 2. 성가정회: 2일(월) 오전11시. 3. 성체강복 및 성체조배: 5일(목) 오전10시~저녁미사 전.  
 4. 병자방문: 6일(금). 5. 7월5일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안드레아 김대건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6. 반기도회: 10일~13일  
 7.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8. 구역봉사자 모임: 다음주 저녁7시30분.  
 9. 구역장 반장 모임: 12일(목) 오전11시.  
 \* 금주 보수비 헌금액: 182,000 \* 현재 모금 총액: 141,261,159  
 \* 현재 신일 총액: 218,431,399 \* 금주 보수비 수입액: 5,200,000  
 □ 지난주 봉헌금: 1,284,95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환

※ 첫영성체교리: 3일~20일까지(오후4시~5시30분까지). \*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  
 1. 구역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4일(수) 오전10시30분.  
 3. 성심회: 4일(수) 오후2시. 4. 사목회: 8일(토) 오후8시.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6. 금주 전례: 강상근 복사-이정문, 지동호. 봉헌-권태형 부부  
 차주 전례: 김광택 복사-이봉연, 박병환 봉헌-신영배 부부

7. 중·고 지도자 하계연수: 3일(화)까지. 장소-송광 제2야영장  
 □ 지난주 봉헌금: 419,670원 □ 교무금: 450,500원  
 □ 신축헌금: 1,015,000원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 명 근

1.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안내: 일요일 오전10시30분-공식미사. 화, 수, 목-오후8시 금-오전10시: 어머니미사 토-오후3시: 어린이미사 오후8시: 특전미사  
 3. 차주 전례: 해설-최정순 독서-구양수, 권미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 태 환  
 사목회장 황 수 석

1. 축! 영명: 김태환(토마) 신부님-①축하미사 오늘 11시 ②축하식-미사 후 ③축하후-나눔의 시간.  
 2. 구역봉사자 미리내 성지순례: 4(수) 전8:30(성당출발). \* 점심, 미사준비 \* 시간 엄수 바람.  
 3.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5시(성당)  
 4. 모임안내: ①성모기사회-7(토) 오전10시 ②카리타스-6(금) 오후2시 ③울뜨레아-다음주 11시 미사 후 ④안나회-오늘 11시미사 후.  
 5. 어머니 성가대 임원개편: ①단장-김금자 ②부단장-최영희 \* 전 임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청소년: 삼천동 주택. 송정. 상산교부근. 7. 성당공사를 위한 2차 헌금-293,110원-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811,160원 □ 교무금: 1,559,000원

**\* 효자동**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 축! 견진  
 1. 교황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2. 사목회: 저녁미사 후. 3. 반석회, 오성회: 공식미사 후.  
 4. 효도관광: 3(화) 오전7:30. 5. 여성분과회: 6(금) 어머니미사 후.  
 6. 안심 공소미사: 6(금) 오후8:30. 7. 병자 영성체: 5일(목)  
 8. 지속적인 성체 조배: 7월5(목) 10:00~6(금) 10:00  
 9. 7월 첫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7월6(금) 오후10:30~7(토) 오전4:30 초청장사-손안나 자매님. \* 매월 첫주 금요일 오후10시부터 실시함.  
 10. 성령기도회: 7월3(화) 저녁8시 미사 후  
 차주 모임: 울뜨레아.  
 금주 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송대식 ②윤길영 기도-정이봉, 박춘근  
 차주 전례: 해설-박명래 독서-유병환, 김성자 기도-채의병, 장옥선.  
 □ 지난주 봉헌금: 542,560원 □ 교무금: 1,386,000원



# 통일을 향한 부푼꿈

## “통일염원 기도회 성황리에 마쳤다.”

### 효심이 (882) 김병오

6·25 도발 40주기를 맞이하여 천주교 전주교구는 ‘통일염원 기도회’를 가졌다. 밤 7시30분 사제단의 입장에서 시작된 이 기도회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박인호 신부의 취지설명, 김선태 신부의 ‘문규현 신부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낭독, 장용주 광주교구 정평 위원장의 ‘문규현 신부 파북 경과 설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박인호 신부는 이 기도회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간 분단의 사실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 지기를 강요 당해 왔다. 통일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 권력자들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말려든 것이다. 그러나 세계가 화해의 장으로 변화되는 이 시기에 유독 우리만이 분단의 장벽을 쌓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된다. 6·25 40주기를 갖는 오늘, 천주교 전주교구는 모든 신부님

들의 합의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이 기도회는 통일을 갈망했기에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동료 문규현 신부와 임수산나 양의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다.”

또 문 신부의 파북 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장용주 신부는 ‘진리를 위한 밀입국’은 항상

있어 왔음을 상기하며 초기 교회 당시의 서양 선교사들과 두번씩이나 밀입국하였던 김대건 신부 사건을 그 예로 들었다. 결국 문규현 신부의 파북 결정은 실정법에는 위배 될지언정 성숙한 신앙인의 고뇌에 찬 결단하였음을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였다. 모든 보고 대회가 끝난 후 미사 강론

에서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의 통일된 지도로써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분단 의식’부터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스스로 내적으로 분열되어 이웃과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 세상 또한 분열시키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내적 평화를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차분히 그러나 정을 담아 말씀하셨다. 그리고 일곱씩 일흔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바벨탑 사건의 상징을 기루로 돌려 모두 하나되는 사람이 되자고 호소하셨다. 이날 중앙 성당을 가득 메운 천여 신도와 60여 사제는 차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마쳤다.

우리의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사건이 아님을 확인하는 부푼 꿈을 안고...



# 삼례성당 \* 전주와 이리의 중간

- 곡창지대 -

參禮는 全州와 裡里의 한중간에 있는 고을로 옛부터 全州에서 한양에 갈때면 반드시 거쳐야 하던 驛站으로서 발전한 고을이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곡창지대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고을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삼례교회의 발전은 공소 시대 초대회장 김방지거와 전교회장 김마리아부터 이어온 사도회장들의 공헌이 많았다.

“한양에 갈 때면 반드시 거쳐야 하던 역참”

이곳은 지역적으로 全州와 裡里의 중간지역으로, 또 양쪽에서 모두 가까운 지역이었으므로 행정구역이 자주 변경됐고 그에 따라 교회도 역시 비슷한 구역 변경이 오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參禮지역에 처음 교회가 들어선 것은 1936년 3월3일이였다. 이때는 물론 공소로 세워졌는데 그것은 이곳에 朴鍾吉, 金龍培 씨 등 신자가 있었으므로 당시 金洋洪 스테파노 교구장이 공소를 세우고 全州교회에 예속 시킴으로써 비롯됐다.

1937년부터는 裡里분당에 속하게 되어 당시 裡里교회 담임이던 하요셉(河漢珠) 신부가 2년, 김필립보(金基奉) 신부가 2년, 김베드로(金榮九) 신부가 3년, 이도밍고(李基順) 신부가 4년간 각각 담임을 했다.

1951년 5월 분당으로 승격되어 초대 담임으로 김베드로(金榮九) 신부가 부임, 기존건물을 개수하여 성당과 기관을 세우고 54년에 현재의 성당을 세웠다.

1958년 4월 2대 오알벨토(吳基顯) 신부가 부임, 인보회 수녀 5명을 초빙, 전교사업을 꾀고 61년 10월1일 제3대 담임으로 이도밍고(李基顯) 신부가, 63년 6월 장분도(姜允植) 신부가 부임했었다.



첫번 담임은 朴三世 신부였는데 당시 全州교회 보좌였다. 그후 교구장 비서였던 최요한(崔致順) 신부가 1년간 담임했다.

# 교구소식

- 축! 건진: 7월1일(주일) 오전10시30분 효자우전 성당
- 축! 건진: 7월5일(목) 오후8시 금암 성당
- 재무 평의회: 7월3일(화) 오전10시
- 교구청 직원 야유회: 7월6일(금) \* 교구청 휴무입니다.
- 선택 제5차 주말: 8월3일(금)~5일(주일) 대상: 미혼남녀 수장료(교재, 간식, 교통비 포함)는 25,000원 신청-교육국
- 교구 여름 코이노니아(캠프) 안내: 일시-1990. 7. 27(금)-29(일). 2박3일 장소-미정 대상-캠프를 실시할 수 없는 신실, 시골분당 참가비-1인당 4,000원(예정) 신청-7월7일까지(선착순 300명에 해당하는 분당수)
- 사회복지 '사랑의 다리' 월례미사: 2일 오전10시30분.
- 파티마 성모의 푸른군대 피정: 5일 오전10시 덕진성당.
- 성모의 기사회 모임: 7일 오전10시 효자동성당.
- 테클라 성소 모임: 오늘 오후2시(성바로 서원) 252-3398
- 성민센트드 불자비의 수녀회 성소자 모임: 7월15일 오후1시30분 (0331)41-2151 \* 중·고 여학생들 모임: 매월 둘째 주일.
-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피정: 오늘 오후2시 동산동 성당 (0652) 77-4212
- 축! 영명일: 3일(성토마스) 서용복, 김정원, 이재후, 이종원, 김태환 신부님. 5일(성김대건 안드레아) 김진소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나도 너도 좋게-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또한 뿜어대는 연기와 함부로 버린 궂초는 이웃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절연합시다.

**은하체육관(태권도)**  
주소: 서완산동 1가 201번지  
효자주공 APT 3단지열  
전화: 83-6482  
관장: 김기남(비오로)  
이난영(엘레나)

전화·국변경·안내  
**백운전자**  
방송시설, 비디오촬영 전문  
백정수(리노)  
이순남(테레사)  
전주시민약국 옆  
☎ 252-0231

**삼성전자역전대리점**  
(공무원 연금가 판매)  
대표 김태권(스테파노)  
윤춘자(마리아)  
☎ 72-4663  
인후동 인후2단지APT와 역전로터리 종리

프로페셔널 오디오 —  
● 방송설비전문  
● C.D 판매  
● 음향기기판매  
● 방송주변기기

**일본명상**  
신앙과 불신앙은 마치 서로 이웃한 두 들판과 같다. 기도가 서로를 갈라놓는 경계선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짊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불신자이다.  
(현자 티에르노 보카르)  
**명동피부과의원**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론대·제구장·김의자  
탁상·화분대·훈례용기구맞춤전문  
서스테파노(옥봉)  
한인나(은순)  
☎ 77-1747

**삼익피아노점**  
코아배화점 3층  
김동욱(마태오)  
채순남(소화대레사)  
☎ 80-1309

고도의 기술 선명한 색상재현  
25분 완성  
**전북칼라현상소**  
대표 오희웅(영보로시오)  
전주시 고사동 1가 연곡매점 남쪽  
(오거리) ☎ 83-5335

**롯데매니아 全北代理店**  
관동사거리,  
구 전신전화국 건너편  
김원준 (야고보)  
☎ 87-7874, 7875

세일 / 여성복, 세일 30%  
**논노(샤트렌)**  
'90여름, 가을상품  
박한홍(기브리엘)  
김옥녀(기브리엘리)  
군산시 평화동 47-5  
☎ 445-1616, 445-7557  
FAX. 43-0066

**우리전투**  
박성환(즈카리아)  
김명숙(올리사벳)  
전주시 사노송동 632-11  
(중앙성당 옆)  
☎ 85-8848

훈수전문·커튼·약혼복  
**서울주단**  
김완준(인토니오)  
박윤화(베로니카)  
중앙성당 정문옆  
☎ 252-0453, 77-5095



# 주님의 향기를 느끼는 심으로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켰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시편 23,1).

모든 인간들이 세상과 인간이  
인 본연의 의미와 관계를 깨닫  
함께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는  
데, 항상 큰일을 앞두고 한적한  
에 가시어 아버지의 품에서 제  
들과 함께 쉬셨던 주님의 휴식,  
휴식 안에서 세계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인간 구원의 길이 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어려운 가정을 들고 '공부, 공부'  
 노래소리에 눌러 쌓인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음미하는 휴식,  
 은 먼나라의 이야기로 여겨질  
 것이다.

자신의 정열을 과시하며 온 대  
를 더위로 몰아넣는 태양, 이  
 양의 열기와 더불어 여름방학이  
 을 춘다. 그러나 진정 졸을 추  
 할 학생들이지만 방학중에도  
 수업, 극기훈련, 자율학습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불러  
 오고, 학원이나 과외수업 등,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한편  
 교회에서는 이와 때를 맞추  
 적당할 날씨를 잡아 '산간학  
 나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학  
 생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노  
 한다. 그렇지만 매년 실행하는  
 모임이 지켰던 학생들에게 진  
 '생기가 넘치는 쉼인가?' 물  
 산간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  
 얽히고 헐다. 교리교사의  
 역, 질적 부족, 지나치게 교육  
 거나 이와 반대로 오락 일변  
 프로그램, 이성관계에 대한



우려와 공부만을 중시하는 부모  
님들의 비협조, 현행 입시제도  
영향으로 지나치게 경쟁심리에  
시달리며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평소 신앙인으로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지 못함에서 오는 수련회  
의 적응부족과 후유증 등. 그러나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당국  
이나 본당의 장기적 안목과 계획  
에 의해서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  
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비본질  
적인 것들이다.

한편의 시나 문학소설을 읽기  
보다 우선 영어단어나 수학공식에  
집착해야만 하는 학생들, 자신의  
삶을 꾸미는 여유보다 우선 후련  
한 디스코 음악과 홍콩무술영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기에 "행복은  
성직적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제목에 왠지 마음이 끌린다. 반  
면에 꽃 한 송이의 향기와 한 마  
리의 나비에 감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우리 학생들이기에  
이 아름다운 마음을 키워줄 교회  
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  
므로 보다 영성 및 인간적 성숙에  
도움을 주는 산간학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의 휴  
식을 제공하는 산간학교로서 정  
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둔물동신학생 / 장상우

## 청소년을 청소년답게 성장시키는 여름캠프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걱정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  
면서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고 동  
굴이나 천막을 잠자리로 만들었  
다. 이것이 캠프의 시초인 것이  
다. 초기 캠프인들은 거의 동물  
적인 본능에 의하여 의식주를 해  
결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캠프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산업이 시작되었고 오랜 시  
간이 지나면서 변모한 형태의 산  
업이 우리에게까지 당도하였다.  
현대인들의 생활은 초기 캠프인  
들과는 많이 달라져서 콘크리트  
속에서 살면서 각종 인스턴트 가  
공식품을 먹고, 별차차 보이지  
않는 공해에 찌든 하늘 아래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산업사회와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세상 곳곳에  
서는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은 도  
덕성까지도 황폐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청소

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하느님은 본래 인간에게 가공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  
들은 너무나도 가공품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 생활은 음식물, 의  
복뿐만 아니라 사상, 지식, 건강,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모두 인스  
탄트형 가공품으로 대치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답게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  
고 있으며 교회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교회가 실  
시하고 있는 청소년 부활운동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청소년을 위한 캠프(산간학교,  
코이노니아)를 꼽을 수 있다. 교  
회의 캠프는 학교를 비롯한 많은  
사회 단체들이 실시하는 일반적인  
캠프의 목적인 레크레이션이나  
기초적인 심리적, 정신적 교육과  
사회성, 책임감의 배양 이외에  
하느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자연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욱 가깝  
게 만들어주며 정신적 육체적 수  
양을 통하여 자연과 자신을 사랑  
하고 타인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그 속에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서 캠프가 끝  
난 뒤 가정과 학교에 돌아가서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기는  
때를 지으려는 의식과 함께 고독  
해지고 싶어하는 의식을 함께 지  
닌 양면성의 시기이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자외선 타의시간에  
치루어야만 하는 입시 전쟁 속에  
서 이기심, 의타심, 타협하려는  
자세, 물질만능주의, 기회주의  
등을 생활 속에서 습득하게 된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더욱 고독  
해지고 있고 때로는 자기들만의  
때를 지어 타인이 그 무리를 침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부터 멀리 떨어진 야외에서 자기  
들끼리의 무리를 이루고 자연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웃을 이해하며 서로  
협동하는 삶을 지내면서 강한 공  
동체 의식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  
게 일직하는 가톨릭 학생의 참모  
습을 찾도록 애김없이 성원하여야  
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자리는 청  
소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때  
에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느  
빌림(창세 6,4)이지 않기를 간절  
히 기도한다.

평화동교리교사 / 이한경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자리는 곧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 숲정이 산책



교황주일

### 사제총회평의회임원선출

교구장 공석으로 미뤄오던 춘계  
사제 총회가 지난 6월 12일 가톨릭  
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병호 주교님 착좌 후 처음 갖는  
총회이어서 나름대로 큰 기대를  
안고 참석했음이 분명하다. 거의  
100% 가까운 참석율이 이를 뒷  
받침한다. 회의 분위기도 역시 시중  
진지하였다. 이날 토의된 많은  
안건 중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사제 평의회 회칙 통과와 이에  
따른 사제 평의회 임원 선출이였  
다. 이날 선출 방법은 사제 전원  
무기명 비밀선거 방식을 사용하  
였는데 교회제도 안에 민주주의의

장점을 접목시킨 아름다운 광경  
이었다. 2차에 걸친 투표에서 당  
선된 사제 평의회 선출 임원 명  
단은 다음과 같다.

- 범석규 신부 김병엽 신부
  - 이수현 신부 문정현 신부
  - 김병운 신부 김봉희 신부
  - 이재후 신부 정승현 신부
  - 김동준 신부 전종복 신부
  - 박병준 신부 (이상 11명)
- 이에 당연직 회원  
총대리(유장훈 신부) 사범대리  
(김진석 신부) 사목국장(김준호  
신부) 관리국장(이태주 신부) 흥  
보국장(권이복 신부) 교육국장

(박인호 신부) (이상 6명)과 임  
명회원, 김치삼 신부 안복진 신부  
지정환 신부 황인규 신부 등 총 21  
명이 사제 평의회 회원이 되어  
교구의 제반 중요사항을 토의한  
다.

이 회의는 제적 회원 2/3 참  
석에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회칙 15조, 의  
결). 정기회합은 2개월에 한 번  
이며 임기는 5년이다.

금번 사제 총회는 할 수 있는  
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교회회를 이  
끌어가려는 교구장의 의도가 두  
드러지게 나타난 회의였다.

**성형외과 개설**  
〈교우우대〉  
물리치료실

**서울의원**

**이상재**  
조종자 (베로니카)  
주소: 덕진동 1401-19 (덕진광장앞)  
☎ 75-0550, 0551

**직원 모집**

- 모집인원: 관리실 1명(남), 사무실 1명(여)
- 자격: 고졸이상 학력사서서 성실하고 신체건강한 자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4 1등
- 기 간: 1990년 7월 15일

연주군 삼례읍 삼례리 1012  
**중 앙 체 재 소**  
☎ 291-8111 ~ 2

**사원 모집**

저희 용진출판(주)에서는 의욕에 찬  
주부사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남는 여자를 환영하며 학종하고 싶으신 주부
- 기간: 7.1 ~ 7.15
- 문의: 전주지역본부 091-482-11(영선) 3층 303호

☎ 251-1983 ~ 4  
**용진출판주식회사**  
제 659본부장 송철자(루시아)

◀신간서적▶  
**가톨릭과 개신교**  
-갈등점·대립점 서로의 이해를 찾아서-  
H. 용파트/정종휴 2,000원  
**성비오로서원** ☎ 252-3398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대여

**최윤경 (유리앤)**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모집·해외연수생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 · 2-8653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문서예학원**

원장 선기정 (요셉)  
효자성당 옆  
☎ 82-6492

항상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선미꽃집**

이마리아·범디포  
☎ 84-2628

**털보네만두우동전문점**  
군산에 탄생  
만두·우동·돈까스·순두부백반  
구. 서울분식

김영수 (보나베포라)  
이규자 (스텔라)  
☎ 445-0910

**brother 디럭스포터블**  
**부라더 전기미싱**

홈패션만능미싱(B950M)  
■ 직선, 지수, 단추, 지퍼, 오버로크  
등 13가지 홈패션기능  
\* 장기할부판매 (12개월)  
\* 홈패션무료강의

**다이한플래닝**  
김무(도미) ☎ 77-7478

**임정골한의원**

원장 임의성 (스테파노)  
리처사 정성욱 (테레사)

☎ 3-2403, 445-2403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당

(군산) 국도극장 뒤